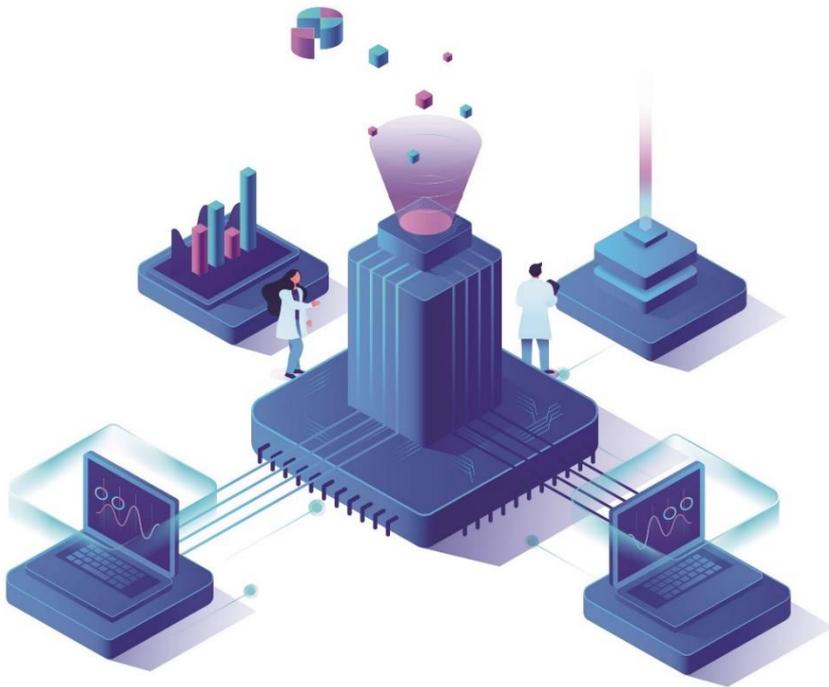


본 자료는 보험연구원이 2020년 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작성한 자료로서,  
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보험정책 방향



금융발전심의회  
2019.12.23

# 목 차

---

I. 보험산업 현황 및 이슈

II. 보험정책 평가

III. 2020년 정책 제언

---

# I . 보험산업 현황 및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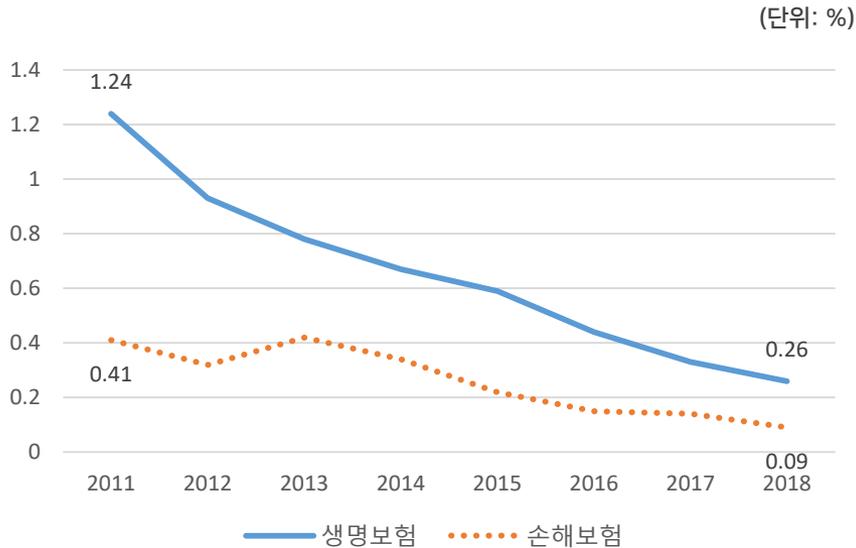
---

1.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신뢰 저하
2. 초저금리 환경의 도래와 건전성제도 변화
3.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 약화
4.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

# 1.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신뢰 저하

- 불완전 판매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판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계약유지율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

### 불완전 판매 비율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### 한국과 일본의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비교(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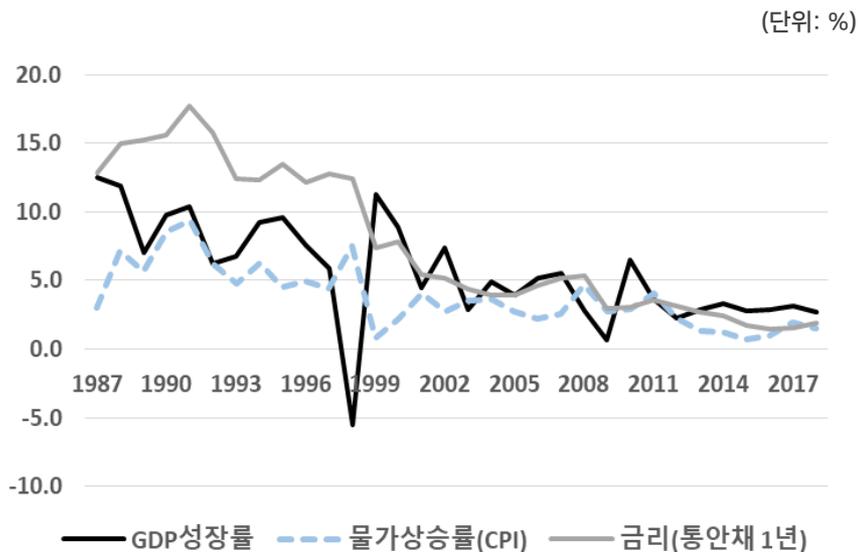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생명보험협회

## 2. 초저금리 환경의 도래와 건전성제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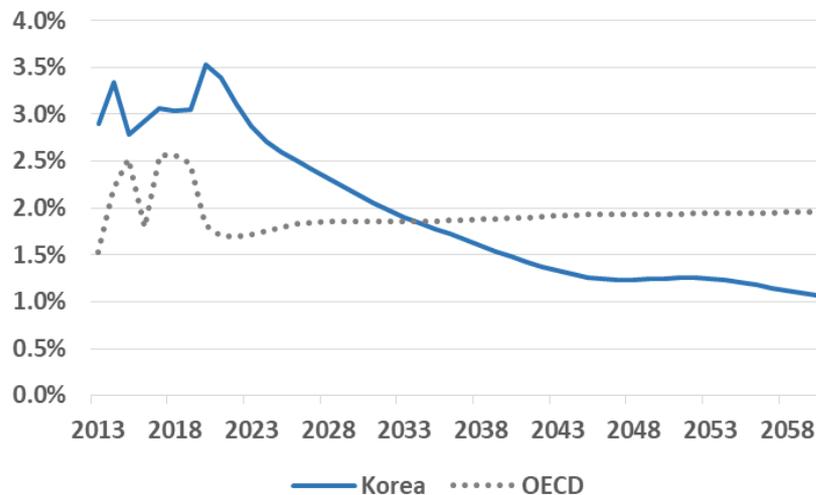
- 잠재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장기금리 1%대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 될 수 있음
-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 변화에 의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가 금리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

금리·물가·경제성장률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잠재 경제성장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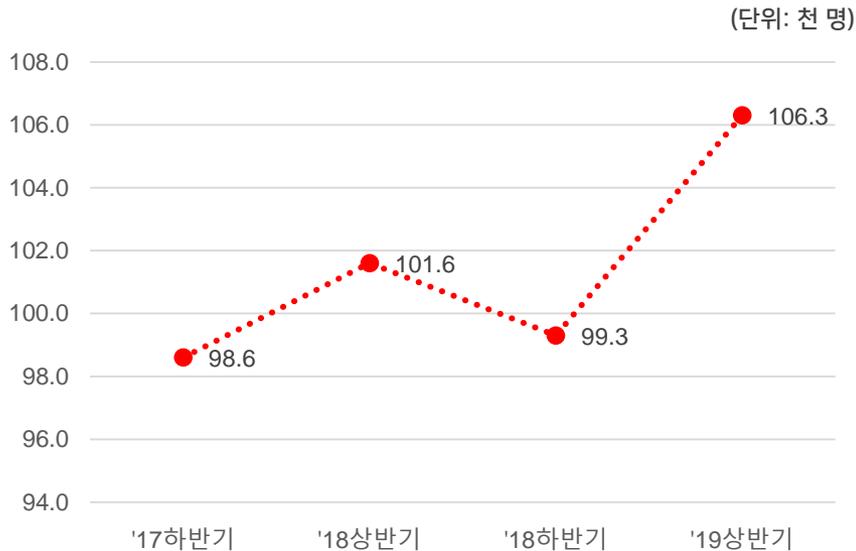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, Economic Outlook 2019

### 3.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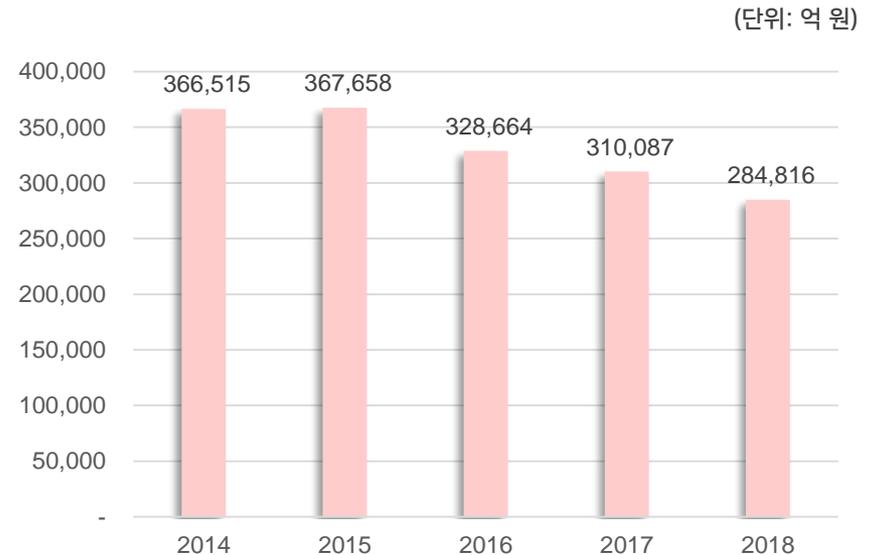
-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, 개인연금보험은 저금리 환경,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등으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음

#### 실손의료보험 영업손해율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####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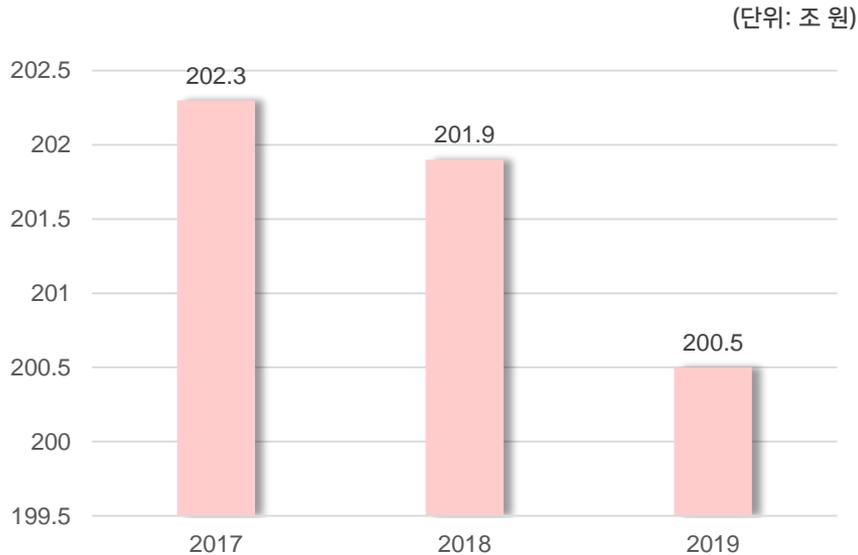


자료: 보험회사 실적통계

## 4.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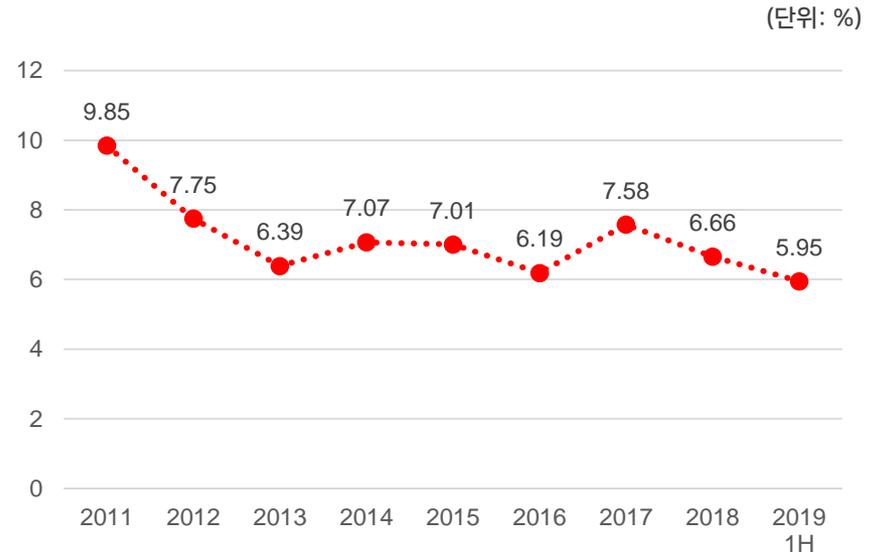
-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 지속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2년 연속 역성장
- 2019년 상반기 보험산업 전체의 자기자본이익률(ROE)은 5.95%로 6%대 이하로 감소

###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추이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### 보험산업 자기자본이익률 추이


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---

## II. 보험정책 평가

---

1. 소비자보호
2. 건전성규제
3. 인슈어테크

# 1. 소비자보호

## 주요 정책

## 정책 평가

### 보험 약관

-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보험약관 개선 작업 추진
- 약관 개선 실무 T/F(금융위, 금감원, 보험개발원, 보험협회, 보험업계) 및 약관순화위원회(법률전문가 등) 운영

-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
- 이와 더불어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개선 작업 병행 필요

### 모집 수수료

-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 개선 추진
- 1차년도 모집수수료가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& 분할지급 방식 도입

- 모집종사자의 **인센티브**가 소비자의 **이해**와 일치하도록 수수료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가 예상
- **보수구조** 개편과 더불어 불완전 판매 시 **배상책임체계** 개편도 병행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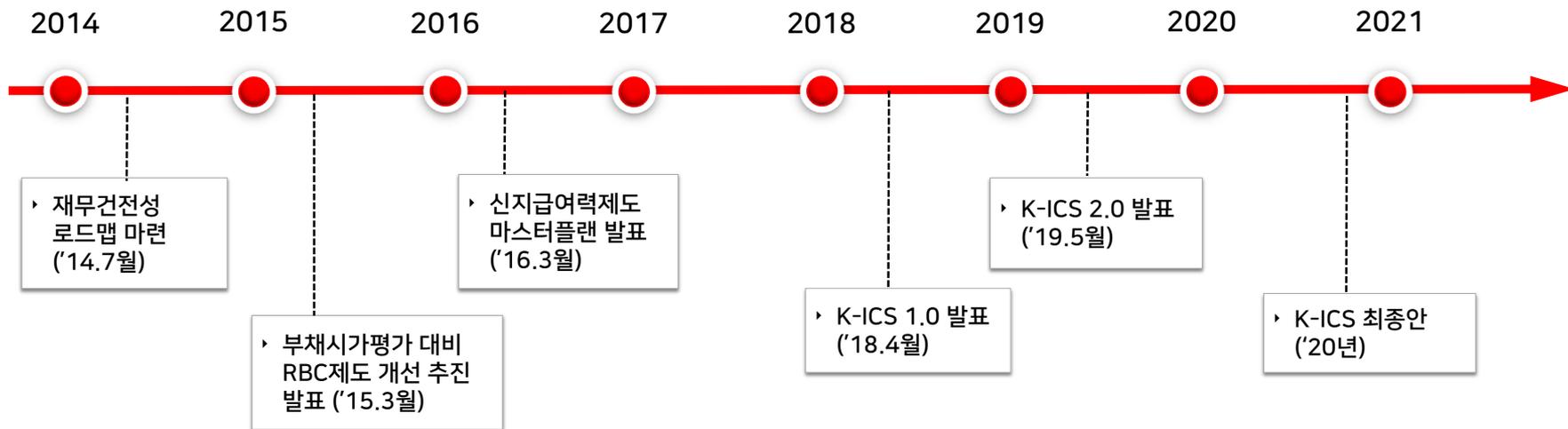
## 2. 건전성규제

### 주요 정책

-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: IFRS 17 시행시기에 맞춰 K-ICS 도입 추진
- 국내 금융시장 및 보험회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연착륙 방안 제시

### 정책 평가

-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
- 보험회사가 자구 노력을 통해 저금리 환경에 대한 강건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필요



# 3. 인슈어테크

## 주요 정책

- **금융규제 샌드박스** 등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

## 정책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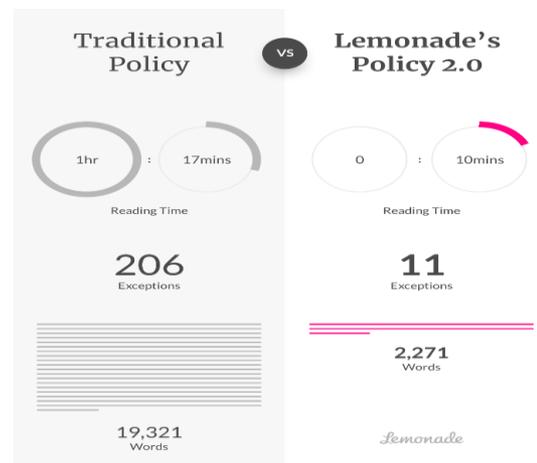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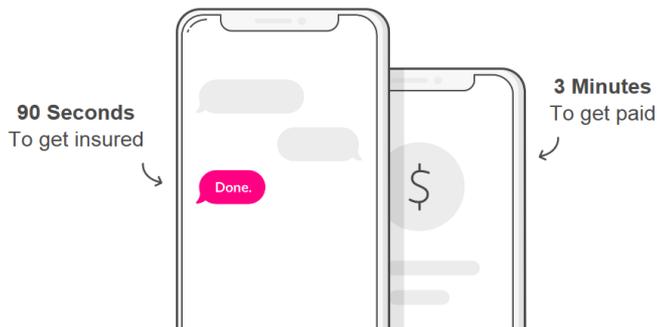
- 'ON-OFF 해외여행자보험' 등 다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도입됨
-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분야 혁신금융서비스가 가입절차 간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점은 한계임

## 해외 혁신사례: 미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Lemonade

### Instant Everything

Maya, our charming artificial intelligence bot, will craft the perfect insurance for you. It couldn't be easier, or faster.

▶ See the Lemonade App in action



---

## III. 2020년 정책 제언

---

1.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
2. 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
3.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
4. 보험산업의 지속성장

#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: 개요

<p>현황 이슈</p>	<p>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신뢰 저하</p>		<p>초저금리 환경의 도래와 건전성제도 변화</p>		<p>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 약화</p>		<p>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</p>	
<p>정책 목표</p>	<p>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</p>		<p>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</p>		<p>사회안전망 역할 강화</p>		<p>보험산업의 지속성장</p>	
<p>정책 과제</p>	<p>판매단계</p>	<p>지급단계</p>	<p>자본관련</p>	<p>부채관련</p>	<p>실손보험</p>	<p>연금보험</p>	<p>모럴해저드</p>	<p>진입퇴출</p>
	<p>대형 GA 규제 혁신</p>	<p>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</p>	<p>자본규제 연착륙</p>	<p>부채구조조정 정책지원</p>	<p>실손의료보험 정상화</p>	<p>개인연금보험 활성화</p>	<p>장기가치제고 경영전략 유도</p>	<p>인슈어테크 규제 개선</p>
<p>상품설명서 · 약관 개선</p>							<p>보험사기 방지대책</p>	<p>예보제도 및 정리제도 정비</p>

# 1-1. 대형 독립법인대리점(GA) 규제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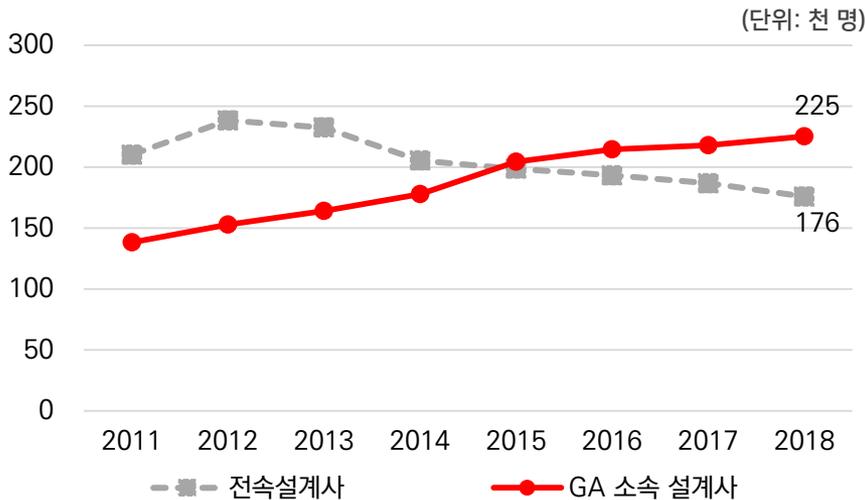
## 검토 배경

- 판매채널 구조 변화: 보험회사-보험설계사의 2원 중심 구조 → 보험회사-GA-보험설계사의 3원 중심 구조

## 추진 방안

-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책임체계를 3원 중심 판매채널 구조에 상응하는 체계로 개편

## 설계사 수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## [참고] 호주사례

-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판매업자의 배상자력 수단 마련과 관련하여 대안② 선택  
대안①: 판매업자가 개별적으로 선택  
대안②: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, 최소요건 지정  
대안③: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, 세부내용 지정  
대안④: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+ 기금조성  
대안⑤: 규제기관에 영업보증금 예탁

## 1-2. 약관·상품설명서 개선

### 검토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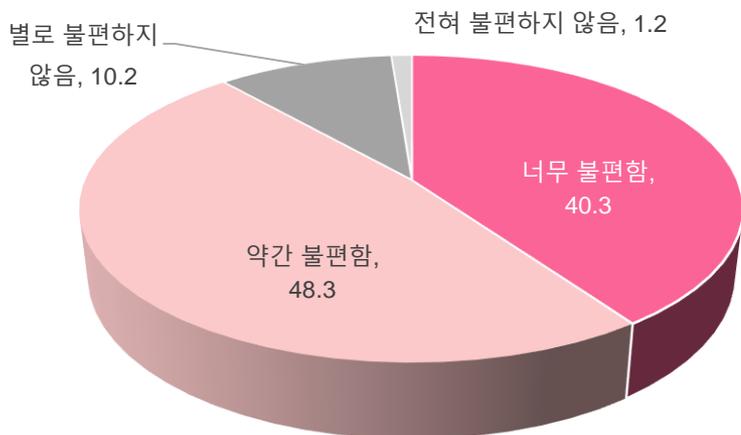
-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『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』에 따르면, 약관 및 상품설명서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.6%

### 추진 방안

-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개선에 **행동경제학** 또는 **집단지성(Collective Intelligence)**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

### 약관·상품설명서 평가

(단위: %)



자료: 금융위원회

### [참고] 미국 레모네이드 Policy2.0 사례

- 미국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인 레모네이드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Policy2.0 공개
- Policy2.0은 오픈 플랫폼 체계 하에서 소비자, 규제당국, 보험회사 등이 약관 수정
- 세입자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보험약관은 읽는데 평균 1시간 17분이 걸렸으나, Policy2.0은 10분으로 단축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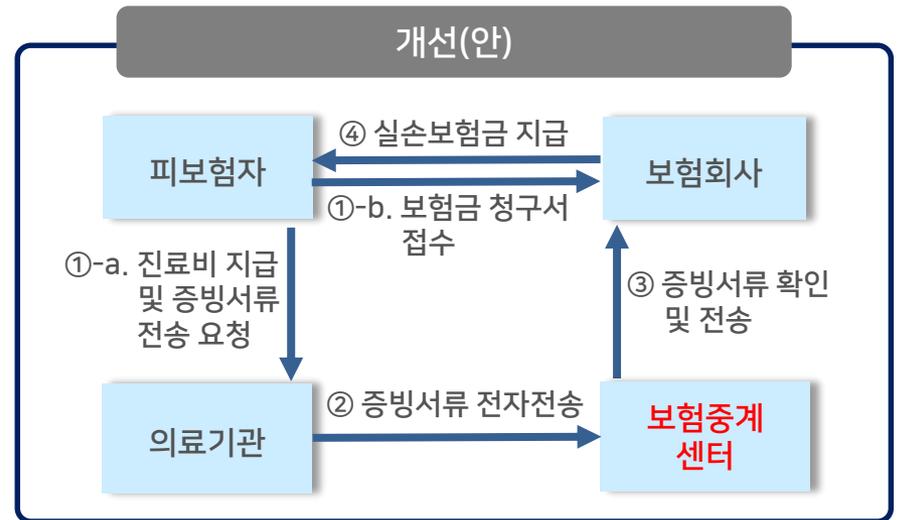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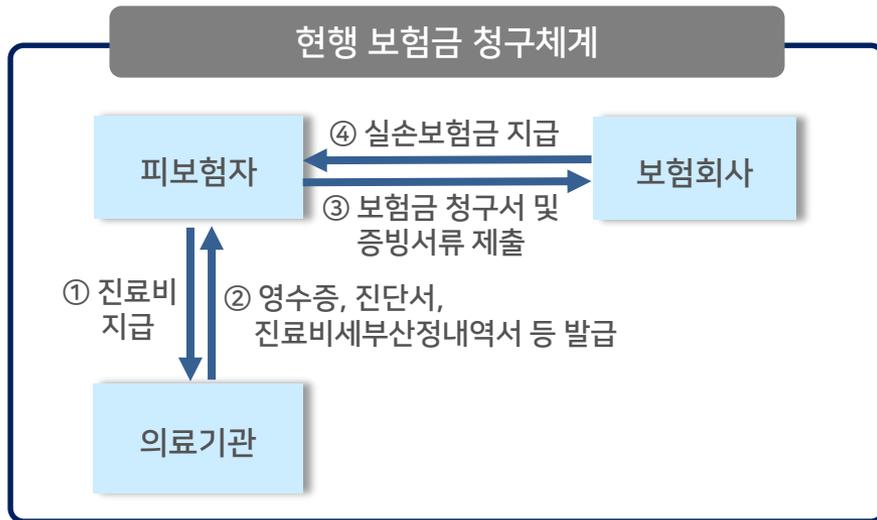
# 1-3.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

## 검토 배경

- 실손의료보험은 전산화되지 않은 청구·지급체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 초래
-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자 가운데 16.7%가 청구 포기

## 추진 방안

-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피보험자의 증빙서류 전송을 위해 **보험중계센터 설립**
-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**법적 근거 마련**



## 2-1. 자본규제 연착륙

### 검토 배경

- (도입시점) K-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**재무적 충격**이 상당하여 제도 수용성에 대한 우려 존재
- (도입이후) K-ICS 도입 이후 **재무적 변동성**의 증가는 시장안정과 경제성장에 부작용 초래 가능

### 추진 방안

- (도입시점)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**경과조치** 도입
- (도입이후)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한 재무적 변동성의 완화를 위해 **요구자본 조정** 등의 조치 필요

### [참고] EU 사례

- 유럽 각국은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고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보완조치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Solvency II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
- 보완조치는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재무적 영향을 완화하고,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

### [참고] Solvency II 보완조치 사례

	보완조치
경과조치	무위험이자율, 책임준비금 차이를 점진적 반영
보험부채평가 할인율	무위험이자율에 금리 가산
주식위험	주식위험 충격을 대칭적으로 조정
재무건정성 회복기간	재무건전성 회복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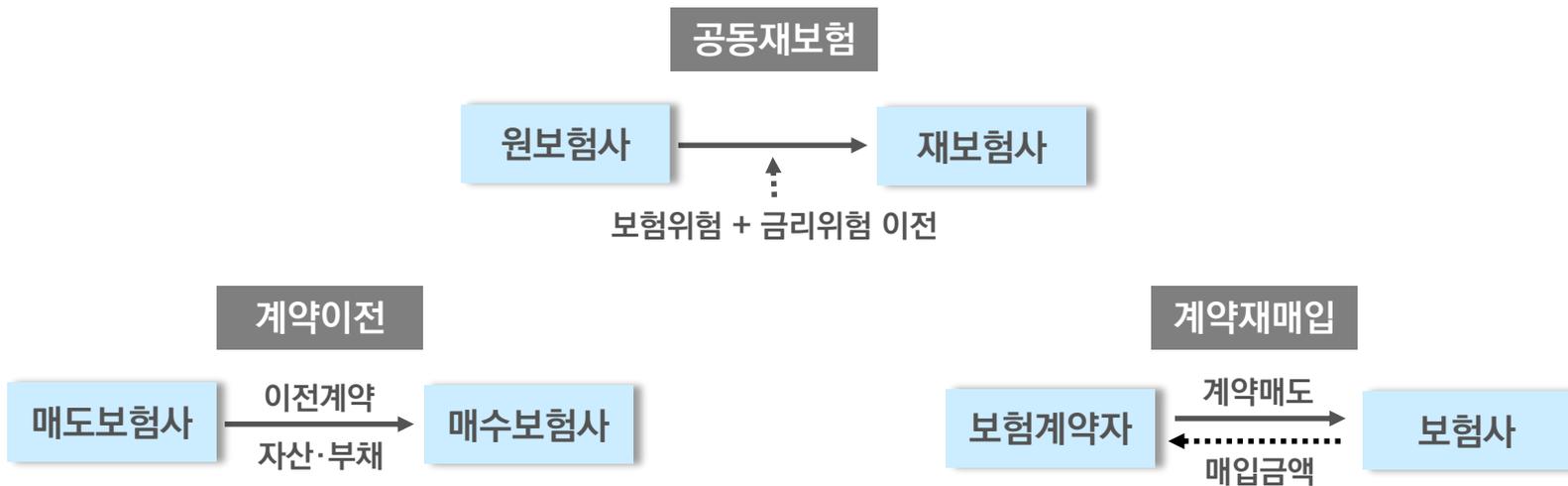
## 2-2. 원활한 부채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지원

### 검토 배경

- 부채구조조정 방안: 공동재보험, 계약이전, 계약재매입(Buyback)
-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거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활용하기 어려움

### 추진 방안

- 공동재보험: RBC 및 LAT에서 위험전가 효과 반영
- 계약이전과 계약재매입: 런오프(Run-off) 계약에 대한 시장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



# 3-1.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

	검토 배경	추진 방안
요율 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 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별 보험금 실적(의료 이용량)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</li> </ul>
보장 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장구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상품으로 구분하고,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 강화</li> </ul>
보유 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유계약의 80%가 20년 이상의 잔여 보험기간을 가지고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로운 계약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 한계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전환 유도</li> </ul>
심사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의 가격 적정성 심사체계 부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또는 실손의료보험 전문심사 기관 설립 추진</li> </ul>

## 3-2. 개인연금보험 활성화

### 검토 배경

### 추진 방안

#### 공급측면

-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연금보험의 주 수익원인 이자율 차익이 감소하여 타 보험상품 대비 수익성 악화
- IFRS17에서 개인연금보험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, K-ICS 하에서는 금리위험과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 발생
- 수수료 제도 변화로 판매유인 감소

- 개인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

#### 수요측면

- 세제혜택 축소로 수요유인 감소

- 개인연금보험 수요진작을 위해 세제혜택 강화 검토

# 4-1. 보험회사의 장기가치제고 경영전략 유도정책

## 검토 배경

- 최근 국내 보험산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**단기 성과주의**가 지적되고 있음
- 보험산업의 단기 성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영자의 보상체계임

## 추진 방안

- 경영자 보수 공시 내용에 보상정책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 검토
- 점진적으로 장기성과 관련 성과급의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는 유도 방안 마련

## 주요국 임원 보상체계

(단위: %)

	기본급 비중	성과급 비중		지표	
		단기	장기	단기	장기
미국	10~16	20	63~67	EPS	TSR
영국	35~41	24~26	35~38	EPS	TSR
독일	31	27~28	41~42	EPS	TSR

주: EPS는 Earnings Per Share의 약자  
TSR은 Total Shareholder Return의 약자

## [참고] 미국의 보상정책 공시 사례

- 보상위원회 보고서의 기재 사항은 크게 임원보수에 대한 회사정책, 회사 실적과 임원보상과의 관계, 임원 보수결정에 사용한 기준과 지표의 공시 등임
- 미국에서 경영자 보수 공시의 핵심은 얼마나 지불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지불했는지에 대한 것임

## 4-2. 보험사기 방지대책 마련

### 검토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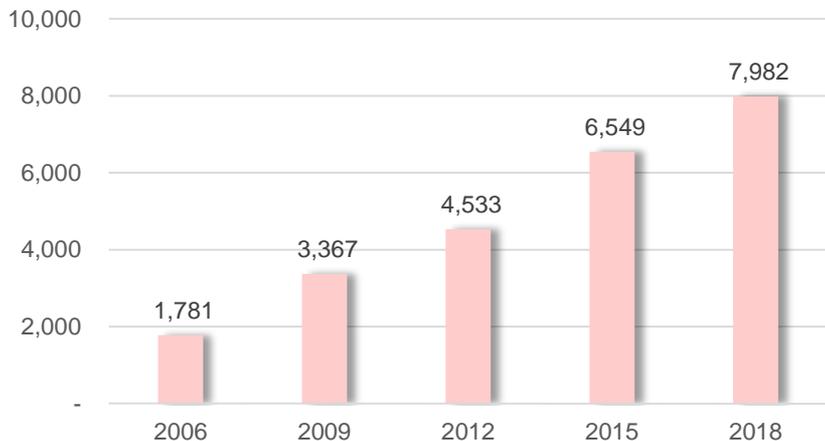
-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약 7,982억 원 기록
- 연성보험사기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

### 추진 방안

- 민영보험, 공보험, 공제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-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연성보험사기 방지 대책 마련

###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

(단위: 억 원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### [참고]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연성보험사기 방지 사례

- 영국 ABI는 2018년 Decision Technology에 의뢰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연성보험사기 방지 연구 의뢰
- 행동경제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관련 온라인 실험 진행
- 보험가입 과정에서는 평균 36%, 보험금 청구에서는 평균 37%의 연성보험사기 감소 효과 존재

## 4-3.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

### 검토 배경

- 공유경제와 깃경제의 부상으로 소규모 인슈어테크에 적합한 틈새시장이 창출됨

### [참고] 공유경제/깃경제

- 공유경제(Sharing Economy)는 유희자산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를 의미 (사례: 숙박공유, 차량공유)
- 깃경제(Gig Economy)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,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
- 공유경제와 깃경제에서는 **초단기 보험**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### 추진 방안

- 인슈어테크의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**상품 테스트베드** 도입

### [참고] 숙박공유 관련 보험 사례

- 가계성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음
- 미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인 Slice는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기 보험상품 제공
- 이들 동안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, 모바일을 통해 이들 동안 보장하는 보험상품 구입
- 재산피해나 배상책임 관련 보장한도가 200만 달러인 경우 하루 당 보험료는 4~7달러 정도임

## 4-4. 예보제도 및 정리제도 정비

### 검토 배경

- 현행 보호한도 하에서는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움
-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장기계약 이전과 관련된 제도 정비 필요

### 추진 방안

- 보호한도 상향 조정 필요, 다만 예보료 인상, 업권간 이해상충, 자금이동 가능성 등의 고려 필요
- 계약이전제도는 예보제도 및 정리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재검토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

###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초과 계약 비중

(단위: %)

구분	비중	구분	비중
연 금	10.9	질병보험	4.2
종신보험	29.6	건강보험	3.6
정기보험	19.5	암 보 험	0.2
상해보험	1.0	-	-

자료: 보험개발원(2018), 『CY2018 생명보험 통계자료집』

### [참고] 캐나다 사례

- 캐나다 생명보험 예보기구인 Assuris는 설립 당시인 1990년에는 한국·미국 등과 비슷한 정액한도 보호방식이었음
-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규모가 증가하자, 정액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방식을 도입

감사합니다

---